

과천소방,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홍보

과천=박재천 기자 (pj0203@ajunews.com) | 입력 : 2023-12-07 09:50
| 수정 : 2023-12-07 09:50



[사진=과천소방서]

경기 과천소방서는 7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,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해 주목된다.

이날 소방서에 따르면,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·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·효율적으로 대응·복구함으로써,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 현황, 자위소방대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.

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·1급 및 2·3급으로 나뉘져 있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, 용도별 양식(10가지)으로 세분화했다.

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, 상업, 주거·숙박, 교육·연구, 의료·보호, 업무·관리, 공업, 창고 등 10가지다.

한편 새로운 양식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과천=박재천 기자(pjc0203@ajunews.com)

©'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' 아주경제.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